

10/14/18

설교 제목: 주 안에 거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2:18-29

- (요일 2: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절판주** 딤후 3:1, 딤후 3:13
- (요일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 (요일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요일 2: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절판주** 벨후 1:12
- (요일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 (요일 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 (요일 2: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 (요일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요일 2: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요일 2: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요일 2: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AD 85 년경에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지 약 50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신 약속대로 곧, 자신들이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 교회에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썼던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므로 소유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젊은 세대로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전 세대 만큼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직 생존해 있는 기성 세대 성도들도 그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자신이 자식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여 미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까 우려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귀절을 보면서 AD 85 년 경이나 그로부터 2000 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 내에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똑같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을 통털어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나며,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등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의 징조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난의 끝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현재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에 촉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영지주의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영지주의가 무엇이고 이것이
기독교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 그노시스(gnosis) 에서 비롯된 용어로 이 단어는 '신비적, 계시적, 밀교적인
지식, 깨달음'을 뜻합니다.

영지주의(Gnosticism)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발생 기원에 대한 정확한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초대 기독교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교리와 다른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지주의는 우주를 영적인 세계와 악한 육적 세계로 이원화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원한 것이라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없어질 것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악한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두가지 상반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이 악한 것이니 금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철저히 육적인 것을 금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멋대로 탐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2.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인 영지(Gnosis)를 얻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기타 종교를 통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인 영지(Gnosis)를 소유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 아니라 영지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구원론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3. 영지주의자들은 윤회설을 주장했습니다.

유력한 영지주의 분파 중의 하나였던 바실리데스파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4.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세부류 영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물질적인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영적인 인간과 정신적인 인간만이 영지(Gnosis)를 가질 수 있으며, 물질적인 인간은 이번 생에서 영지(Gnosis)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구원을 성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영적인 인간의 부류이며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파괴시키려 합니다.

(요일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억지로 출교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를 나간 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속했었지만 사실은 전혀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요일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냥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거룩한 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단인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도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성유식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한 부분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20 But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원어에는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한 지식 영지를 소유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2: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를 알고 식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짓이 진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일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거짓말 하는 자'란 예수가 이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 곧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와 교제를 나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 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며 인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 2: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주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요일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요일 2: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며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칠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쳐야 하며 그 내용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처음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을 언급합니다.

(요일 2: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사귀을 갖지 못하고 그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표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요일 2: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도처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진리인 복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이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